



아산시청 전경

## 아산시, 2020년 농정현황 발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시정 브리핑을 통해 2020년 농정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는 영농 성장기에 길게 이어진 장마와 8월 성숙기엔 폭우, 태풍이 겹쳐 기상 여건이 최악의 농작물 경작조건이었다고 말하면서 이런 악조건을 이겨내고 수확에 결실을 거둔 농업인에게 감사를 표했다.

장마와 폭우, 태풍 등으로 벼, 과수, 채소 등 모든 농산물 수확량은 전반적으로 대폭 감소로 이어졌고, 제8호 태풍 바비는 아산지역을 관통,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지만 9호·10호 태풍은 비껴 지나가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었다.

또 장마(54일), 폭우(8.3일), 태풍으로 삼중고를 겪고 성숙기 일조량 부족과 도열병 등 병충해가 발생, 여물어 가는 벼에 쭉정리와 청치가 생기는 등 치명타를 입

혔다. 이로 인해 미질과 수율이 떨어졌고 결국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아산시는 분석했다.

다행히 수확기 벼와 쌀값이 최근 몇 년 들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벼 수매가도 전년도 1등급 6만5천750원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가격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조

심스럽게 전망했다.

이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겨울철 불청객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까지 동시에 3개 가축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는 트리플 데믹(tripledemic)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축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 관계자는 “장마, 폭우, 태풍 삼중고를 이겨낸 우리 농업인들의 저력과 역량을 볼 때 코로나19도 능히 이겨내리라 확신하고 시는 앞으로도 34만 아산시민과 2만여 농업인과 함께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청년농 지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2017년 준공돼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가공 창업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농산물가공 기술이전, 시제품 개발, 가공상품 위탁생산, 창업보육 프로그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 가공 장비 112종을 갖추고 있다. 생산품은 과채 주스 7종(배, 사과, 아로니아, 포도, 토마토, 블루베리, 오디), 쌀 조청, 식용유지 2종(생들기름, 참기름), 잼(딸기잼), 과채 가공품 2종(아로니아 분말, 쪽파 플레이크), 벌꿀 스틱 2종(아카시아꿀, 야생화 꿀) 등으로 현재 19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청년농 지원 육성 사업은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농촌 조기 정착을 돕고 농업 인력을 젊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5명을 선발해 16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첨단농업 스마트팜 시설 등 맞춤형 영농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시를 대표하는 농업인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세현 아산시 시장